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4월 13일(월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전민영(043-870-5420), 김상걸사무관(5421), 김선화전문관(5426)

# 국표원, 온라인상에서의 불법·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

## -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양해각서(MOU) 체결 -

□ **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**

○ **국가기술표준원(원장 : 성시헌)과 17개 온라인유통사**는 4. 10.(금), 결함 보상(이하 리콜) 제품과 불법·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**'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'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***하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* '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'에 등록된 불법·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,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

□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**위해가 우려되는 제품** 적발 시, 이 상품의 **정보**를 **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**하고

○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**리콜제품과 불법·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**함과 동시에 **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.**

○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, 옥션, 11번가, 인터파크, 신세계몰, 이마트몰, 롯데닷컴, 롯데홈쇼핑, 위메프, 쿠팡, 티몬, 홈플러스, 현대홈쇼핑, GS홈쇼핑, NS홈쇼핑, CJ오쇼핑, AK몰 이다.



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**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**

○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**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,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**할 수 있다.

○ 또한,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.

□ 이번 협약은 **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***로 인한 **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**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**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**하게 한 것이다.

* 온라인쇼핑몰거래액: ('11)18조9,910억 원→('14)28조6,157억 원 / 연평균 14.6% 증가

□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해

○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,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.

○ 또한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**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**해 나가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상걸사무관(☎ 043-870-5421), 김선화전문관(☎ 043-870-5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

## □ 개 요

o 위해상품 판정시 해당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*과 유통업체를 연계하는 시스템('09년 구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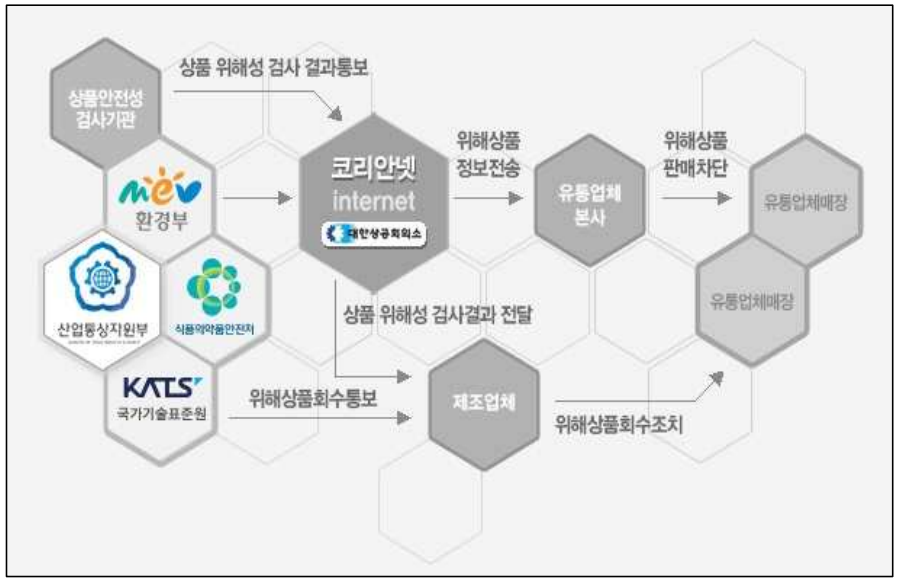
* 국표원(전기용품, 공산품), 환경부(유아용품), 식약처(식품), 농식품부(농산물)

## □ 운영방식

o 검사기관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(대한상의 운영)에 위해상품정보*를 입력 해당상품의 유통 차단

* 검사기관명, 인증번호, 모델명, 바코드, 제품명, 제조일자, 업체정보(업체명, 전화번호, 주소), 부적합내용, 사진

- (오프라인)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
- (온라인쇼핑몰) 홈페이지 상 안내문구 게재 및 결제진행 차단




(출처 :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)



o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마크를 부여

위해상품차단시스템 운영매장

## □ 운영현황

○ 백화점, 슈퍼마켓, 편의점, 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 등 49개사가 연계 시스템 구축·운영('14.12월)

| 구분 | 업태 | 유통업체 |
|---|---|---|
| 오프라인 | 대형종합소매업(6개) | 롯데마트, 이마트, 홈플러스, 하나로클럽, 서원유통, 메가마트 |
| | 백화점(6개) | 현대백화점, 한화갤러리아백화점, 마산대우백화점, 메가마트, 신세계백화점, 세이브존아이앤씨 |
| | 슈퍼마켓(8개) | GS 리테일, 익스프레스, 하나로마트, 롯데슈퍼, 메가마트(슈퍼), 이랜드리테일, 에브리데이리테일, 현대그린푸드 |
| | 체인화편의점(8개) | 씨유(CU), GS리테일(25), 세븐일레븐, 바이더웨이, 씨스페이스, 한국미니스톱, 365플러스, 위드미 |
| | 음식료품 종합소매업(9개) | 나들가게, 중소유통매장, 초록마을, 국군복지단, 코레일유통, 판도라로드샵, CJ올리브영, 분스(이마트), 몰리스(이마트) |
| | 음식점(2개) | SPC그룹(파리바게뜨, 크라상, 던킨 등), CJ푸드빌 |
| 온라인 | 쇼핑몰(10개) | NS홈쇼핑, 롯데홈쇼핑, 11번가, GS홈쇼핑, 이마트몰, 신세계몰, CJ오쇼핑, 홈플러스, 현대홈쇼핑, YES24 |